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건강 밥상' 챙긴다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 창립총회·출범

내년 초 본격 영업…맞춤형 급식 서비스도

광산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식재료 공급에 나섰다.

특히, 구는 최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을 창립,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5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건강한 반찬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건강밥상협동조합 발기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에서 만든 반찬과 먹거리로 아파트 주민에게 행복한 건강 밥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밥상협동조합은 광산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 복지정책 '늘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다. 건강밥상협동조합 창립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공모사업' 선정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주민들은 '반찬 제공'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했다.

구는 이런 주민 요구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과 연결했다. 구는 공모에 선정되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표로 한 협동조합 조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아파트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주민 6명을 추천받아 협동조합 생산자로 참여시키고, 주민 교육과 협동조합 운영 실무도 담당할 중간지원단체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을 선정했다.

건강밥상협동조합은 중간지원단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의 조력을 받는다. 먼저,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식자재를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산동 국민행복주택 상가를 협동조합 영업장으로 3년간 무상으로 빌려준다. CSR impact는 기업의 사회 공헌과 협동조합을 연결해 조리기구와 음식 조리법 등을 지원한다. 이 모든 지원은 6월 광산구와 기관들이 맺은 '영구임대주택 늘행복 프로젝트 협약'에 따른 것이다.

건강밥상협동조합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앞으로 조리법, 반찬 판매법 교육 등 2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아파트 주민에게는 맞춤형 급식 서비스와 배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관 협업으로 설립된 건강밥상협동조합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건강 먹거리를 챙기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광산형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영봉 기자

광산구는 최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을 창립,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제공

청년 일자리 거점 '청청플랫폼' 개소

AI모의면접·정장 대여 등 구직비용 부담 경감

광산구는 최근 청년 취업을 돕는 '청청플랫폼'을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 개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청청플랫폼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일플랫폼', '활력옷장', '활력쉼터'로 구성돼 있다.

일플랫폼에서는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한다. 이곳은 광주지역 맞춤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는 '일자리 키오스크', 인공지능 면접 연습과 결과를 분석해 제공하는 'AI모의면접 연습', 취업 정보 등을 출력할 수 있는 'PC정보검색 출력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AI모의면접 연습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AI면접에 대비하고, 대인 면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들은 이를 이용해 연습·실전 모드로 답변, 면접 태도, 상황 대처 능력, 직무적합도 등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

활력옷장에서는 무료 면접 정장 대여로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광산구 청년 1인에게 1회에 3박 4일 기간으로 연 10회 면접 의상을 빌려준다. 대여는 광산구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광산경제백신회의, 2차 '1% 희망대출' 실시

내달까지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한도

광산경제백신회의는 '1% 희망대출' 2회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민관산학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 8일 광주어룡신협·비아신협·서광주새마을금고와 구청에서 '1% 희망대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감염병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5월 광산경제백신회의와 5개 지역 금융기관이 '광산경제백신' 8탄으로 추진해 성료한 1차 1% 희망대출에 이은 추가 조치. 당시 협약기관들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와 1%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개월 만에 165건의 대출, 한도 5억원 소진이라는 성과를 남기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는 지역사회의 평가를 얻었다.

2차로 진행되는 이번 1% 희망대출은 1년 만기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고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받는 소상공인은 1%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 비용은 광산경제백신펀딩에서 보전된다.

11월 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총액 5억원이 소진되면 접수는 중단된다. 지원대상은 광산구 소상공인으로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금융 사각지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다. 특히, 코로나19로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중인 소상공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

1% 희망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사장님 다시서기 긴급 상담창구'에서 한다.

4월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광산경제백신펀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해 지난달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안심식당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총 11개의 광산경제백신 시리즈를 진행했다. /윤영봉 기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확정

광산구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대비 1.6% 인상된 시급 1만520원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문화생활까지 고려해 책정하는 급여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7원 인상된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다음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지역 농산물 결혼식 답례품 전달식

광산구는 최근 구청에서 '우리 농산물 결혼식 답례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결혼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한 공무원 3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광산구의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공직자 참여 운동'의 하나로, 공무원들의 지역 농산물 소비 솔선수범과 농민 소통 행정 등을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와 우리밀협동조합은 전달식에 앞서 현미, 유정란, 사과즙, 우리밀 제품 등으로 구성된 결혼 답례품 5종 꾸러미를 마련해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주시와 4개 자치구에서도 지역 농산물 꾸러미가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달식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장 등과 결혼을 앞둔 공무원들의 답례품 선택에 고마움을 전하고, 축하 덕담도 건넸다.

김 청장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민과 함께 결혼을 축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비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지투리 소식

'유아숲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광산구는 '언택트 슬기로운 유아숲 페스티벌'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유아숲체험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숲 꾸러미'를 유아가 있는 가족에게 제공해 각 가정에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6~7세 유아가 있는 가족이 페스티벌 참가를 신청하면, 광산구가 숲 꾸러미를 선착순 100가족에 지급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광산구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받는다.

숲 꾸러미에는 솔방울·열매 등 캔버스 꾸미기와 화관 만들기 재료들과 함께 체험 활동 설명서가 들어있다. 광산구는 참가 가족들이 가정에서 자연 재료로 저마다의 완성품을 만들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꾸러미 내용물을 구성했다.

참가 가족으로 선정되면 숲 꾸러미를 경암·생태·무양·원당산 유아숲체험원에서 받아 가면 된다

야호센터, 주변 상인들 응원

광산구는 최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청소년 참여기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 주변 소상공인에게 응원 문구와 선물을 전달하는 '야호가 간다'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현실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또 활동 1주일 전, 센터에 모여 면 마스크와 응원 문구가 담긴 손 편지도 제작해 3일 동안 상가 방문에 나섰다.

김현정 야호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장은 "상인들이 활짝 웃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야호센터가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미친곱떡, 쌀·가게 이용권 기탁

광산구는 미친곱떡 정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쌀 1,000㎏과 250만원 상당의 가게 이용권 100장을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탁된 쌀과 이용권은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코로나19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